### 단국대학교죽전치과병원

을 느꼈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

기흥구 상갈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30 · 여)씨는 얼마전 사 랑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매복사랑니 에 충치가 생겨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인근 치과를 찾았지만 발치에 어려움을 설명하며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 을 것을 권유받았다. 이씨는 인근 지자체 대형병원을 알아 봤지만 한숨부터 나왔다. 사랑니 발치를 위한 예약대기 시 간이 한 달 넘게 소요되고 높은 병원진료비도 부담으로 다 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걱정은 죽전치과병원에서 해결됐다. 빠른 예약진료와 합리적인 진료비에 큰 만족

과 치료, 그리고 쾌적한 의료시 설 환경에 감동받은 이씨는 지인들에게 죽전치과병원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 난치성 치주질환도 척척… 건강한 치아 지킴이

### 개원 5주년, 인재양성·연구중심 병원 도약 지역 치과의원과 협업체계 구축 상생진료 소외계층 진료활동 등 지역사회 위한 인술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 도시확대와 인구팽창이 급속도 로 이뤄졌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용인시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근 도시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치과전문병원의 부재로 시민들은 높은 진료비와 대기시간 을 감수하면서 인근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시민들의 치과진료에 대한 불편은 지난 2010년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내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이하 죽전치 과병원)이 개원하면서 해소됐다.

개원 5주년을 맞이한 죽전치과병원은 생동감이 넘친다. 연륜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젊음에서 나오는 패기가 잘 융화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높은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친절함이 죽 전치과병원의 자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죽전치과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한 이후 약 5년 동안 18만명 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치과대학병원으로 평 가받고 있다. '건강한 치아 밝은 웃음'을 슬로건으로 표방하는 죽전 치과병원은 치과병원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결과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개원을 계획했던 당시 지역의 치과의 원의 반대가 강해 개원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지만 죽전치과병원은 지역의 치과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 해 신뢰를 얻어냈다. 그리고 지역의 치과의원 60여곳과 협력 병원 계약을 체결, 1차진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치과진료를 죽전치 과병원으로 의뢰, 진료 이후 다시 의원에 진료를 맡기는 선순환 협 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지역의 소규모 치과의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진료 분업을 통해 대기시간 을 줄이는 등의 업무 효율성도 가져왔다.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환자를 위해 힘을 모은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죽전치과병원은 치료기관의 업무와 함께 인재양 성 및 연구중심 병원으로도 활동영역을 넓혔다.

개원 이후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아 총 4명이 수료하고 4명이 수련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에는 치 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아 5명이 수련하는 한편 전국 치위생학과 개설대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실습학생을 교육 하고있다. 병원의 성장만큼이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활동도 활 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죽전치과병원 내에는 지난 2012년 5월 개소 한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활동을 펼치 고 있다. 구강진료센터는 일반치과병원에서 진료가 어렵고 높은 진료비에 좌절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지 원하고 죽전치과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료가 어렵지만 구강진료센터 에서는 마취과전문의, 치과의사, 마취전문간호사 등 10여명의 진 료인력이 상주하며 어려운 이들의 진료를 돕는다.

전신마취치료실과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을 갖춘 구강진료센 터에는 그동안 치과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뤄왔던 많은 중증장애인 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개소 이후 전신마취환자 800여명을 포함해 총 1만여명의 장애 를 가진 환자들이 치과진료를 받았다.

죽전치과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환자들을 위 해 다양한 진료비 감면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가 상주해 환자들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죽전치과병원은 개원 이 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 신경철기자 shinpd44@hanmail.net

## 구강보건 최고의 병원 약속



어느덧 죽전치과병 원이 개원한 지 벌써 5 년이 되었습니다.

5년전 우리 대학은 교시인 진리, 봉사를 목표로 지역사회 주민 뿐만 아니라, 단국가족 의 구강보건향상을 위 해 이곳에 치과병원을 개설하고자 결정하였 습니다.

개원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진리, 봉사, 친절을 병원의 모토로 삼고 전구성원이 노력한 결과, 지금은 경기일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과 개원 5년 만에 우리 병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당국의 전폭적 지지와 치과병원 교수님들을 위시한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치과대학병원이 되도 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



남자 : 건물관리직

여자 : 경리, 회계 유경험자 우대

(주) CMC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86-1 아래 이메일로 이력서 첨부요. seho2266@naver.com





